



오전 11시
교회소식
성찬식

한울림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성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신양고백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 228)

결단의 기도

예수 우리 왕이여(찬 38)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 양*

회중기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1:19-30

“팔복”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 교회”

교회의 참된 터는(찬 60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자와 영상 예배자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1/24) 2021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2021년에도 큐티책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사역팀장(박순정)에게 신청해주세요. (1년-\$54, 6개월-\$27)
6.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작년 갑작스럽게 민영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매일 새벽기도회 때마 그날의 선교사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2월부터(혹은 3월) “이 달의 선교사”를 정해서 선교사의 사역보고와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일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그 소식을 전하니 모두들 아주 기뻐했습니다. 선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요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후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예배당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공사할 것이 몇 가지 남아 있고, 그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전체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당국의 일처리가 느린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옥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새 예배당에 가면 기도할 곳이 많습니다. 넓고 좋은 예배실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개인 기도실도 갖추어져 있고, 밤을 새워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울림교회 성도들은 2021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의 완공은 건물을 마감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세워갈 때 진정한 완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